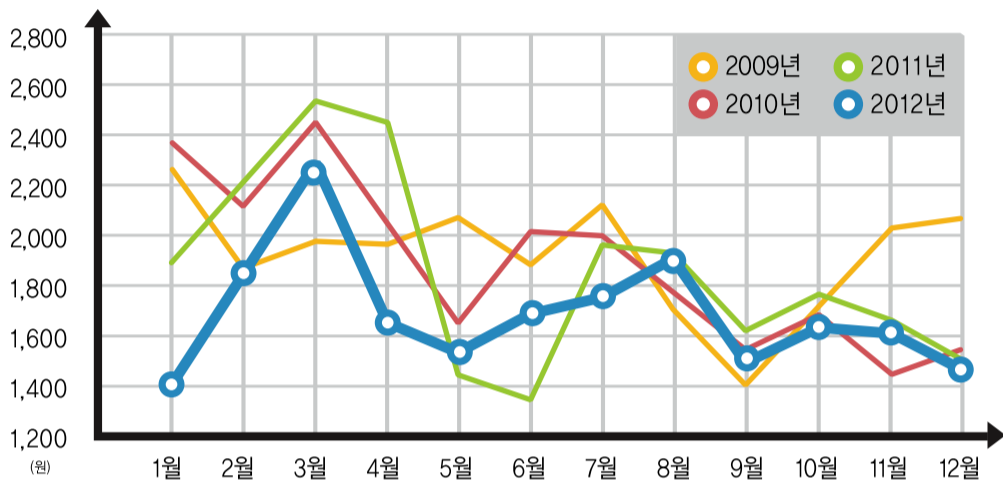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 육계산업 불황 장기화 어디까지?

종계감축 등 업계노력에 큰 기대



1960년대 마당닭으로 시작된 육계산업은 70년대 이후 외국으로부터 육성율이 좋은 닭품종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열화사업이 도입되고 자동화가 급진전되면서 이제는 닭고기가 명실상부한 국민들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매년 도계물량은 3~4%씩 증가하여 지난해 7억 9천만수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도 2011년 11.4kg(정육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육계산업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종계감축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육계농가 어려움 지속

지난해 육계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육계 생체 평균가격은 kg당 1,670원으로 2008년 이래 평균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었다. 육계 생산비선인 kg당 1,700원 선을 넘지 못하면서 모든 육계관련 산업이 최악을 맞이했다.

이 같은 불황은 이미 2010년부터 예고되었다. 이미 2012년 육용전용 실용계 생산잠재력은 6억 9,703만 5천수로 전년동기(6억 5,082만 3천수) 대비 7.1% 높게 나타나며 자체생산기반이 커지면서 과잉생산으로 인

한 어려움을 예고한 바 있다.

금년도 1/4분기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또한 1억 7,445만 7천수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1억 6,119만 5천수)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역시 어려움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매산 부도 이후 업계 어려움 지속

국내의 중견 계열업체인 매산씨엔에프가 지난해 12월 24일부로 부도가 났다. 매산과 계약하고 있는 계열농가는 20여 곳으로 대부분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수개월 동안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사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데다 키우던 닭도 사료 공급의 어려움과 출하지연 등으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문제는 불황이 초기에 끝나지 않는 것이라든가 어두운 전망이 일고 있어 업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수입닭 국내 생산량의 30% 육박

수입 닭고기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처음 닭고기가 수

입개방된 이후 고병원성AI가 국내에 발생되기 직전인 2002년까지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27%까지 잠식하기도 했으나 AI 발생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다소 주춤하였다. 2010년까지 1년에 1만 톤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2011년 108,595톤, 2012년 117,790톤으로 이미 국내생산량의 30%를 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중FTA이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값싼 중국산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계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각 관계단체에서는 육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조만간 종계감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원종계 감축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육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전업계의 장단기적인 노력을 통해 하루 빨리 육계산업이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



## 닭고기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직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하림그룹회장  
김홍국



올해 2월 23일부터는 축산계열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축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림 김홍국 회장은 “계열화사업법이 시행되면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에 객관적인 표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에는 각 회사마다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잡음이 많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주요골격이 같기 때문에 누구든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김홍국 회장은 “그 만큼 크고 작은 시비가 줄어들고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양쪽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하자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의 상생 통해 장기불황 극복해야

장기불황의 열쇠는 창의력 발휘와 양계종사자의 하나됨

김홍국 회장은 장기불황에 따른 양계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 스스로도 병아리 10마리를 시작으로 현재의 하림을 일궈낸 사업가이기에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아는 바였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순간순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데에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얻어낸 창의력에 있었다.

김 회장이 처음 닭을 키운 계기는 초등학교 때 외조모가 몸보신하라며 준 병아리 10마리였다. 김 회장이 정성을 다해 키운 결과, 병아리 10마리는 닭 1,000여 마리와 돼지 30여 마리로 늘었고 월 300만 원이 넘는 수익도 얻었다. 18세 때는 4,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황등농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양계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82년 전국적인 닭값 폭락사태로 한 순간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김 회장은 한 식품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어 와신상담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그 즈음 한 강연회에서 통합경영이라는 경영이론을 접한 후, 농장과 공장, 시장을 통합하는 ‘삼상통합경영 체제’를 기본으로 양계장 사업에 다시 한 번 뛰어들었다. 사업을 확장하며 1987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하림식품을 설립했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1997년 IMF의 높은 파고를 넘을 수는 없었다. 국내 대기업과 은행들도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김 회장은 해외 자금에 희망을 걸었다.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2,000만 달러 투자를 얻은 하림은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은 하림의 안주를 용납하지 않은 것일까? 2003년 5월 하림은 전북 익산의 본사 공장을 대화재로 잃는 뼈아픈 손실을 입었다. 피해액만 1천억 원이 넘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였지만 수많은 직원들을 생각하니 여기서 멈출 수도 없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한쪽에서는 공장을 새로 짓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을 빌려 닭을 생산가공하며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 모든 것이 하림의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친 덕이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 하림은 현재 국내 최대의 닭고기 제조가공업체로 성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나 닭을 키우거나 식품 가공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에 맞았기에 난관에 봉착하면 이를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닭을 키우거나 식품을 가공하는 일,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적성에 맞았기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밤을 새서 매달렸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다 천재가 된다”며 “자기 적성에 맞으면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고비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현재 장기불황으로 양계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닭을 키우는 일이 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면 언젠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닭고기 품질 높이고 닭고기자조금 거출에도 힘 보태야

현재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됐으며 앞으로 다른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FTA가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인 만큼, 수입 농산물의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홍국 회장은 “FTA 시행은 곧 국가 간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계 모든 시장이 하나가 되어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림은 업계와 농가들의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여 작년 5월부터 꾸준히 닭고기 수입을 감소시켰고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줄인 상태이다.

김 회장은 FTA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해외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따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그들 생산원가의 80%까지 줄이도록 노력해 보고 품질을 더 좋게 한다면, 국내 소비자의 정서상 국산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닭고기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회장은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들이 낸 닭고기자조금을 통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 닭고기의 좋은 점을 홍보해 소비를 촉진하고 양계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하림과 같은 계열화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닭고기 브랜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홍보해 나간다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는 점점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있으며 더 값싼 해외 제품들이 국내에 침투해 오는 실정이다. 특히나 수입산 먹거리가 국내 시장으로 파고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가 힘을 합쳐 닭고기 품질을 높여나가고, 질 좋은 국내산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빠르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HOT  
ISSUE

0 0 2

# 대한양계협회, '추적60분'팀 항의방문

## 업계현황 취재 - 축산단체 강력반발



지난 1월 21일 '추적60분' 취재팀이 대한양계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이어 지난 1월 24일에는 축산 및 양계단체들이 KBS를 방문하여 양계업계의 소리를 전했다. 최근 '추적60

분'에서 축산물 항생제 관련 취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30일(수) 보도가 예정되었다는 소식에 따른 조치였다.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임원과 실

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추적 60분'팀을 만나 축산물 항생제 관련 취재에 대해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축산업계의 현황을 피력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무조건 간이 검사를 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정량검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감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

장은 "우리 축산인 및 양계농가의 바람은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축산농가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앞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통해 항생제 사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농가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축산관련 단체들은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항생제 검사를 공공기관에 의뢰, 축산물이 항생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 대통령직인수위, '농림축산부'로 개칭 강력반발

양계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해 식품업무 일원화해야



지난 1월 24일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며,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 및 양계농가는 명

칭 변경에 대해 '축산'으로 개칭한 것은 환영하지만 '식품'을 빼고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축산인과 양계농가는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98년 식약청이 할 수 없다고 한 업무를 다시 넘기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식약청은 그동안 규제만 하고 일반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식품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들은 7천만 민족 생명곳간의 열쇠인 농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 농식품부, 닭·오리 정부 도축검사 실시로 가금류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 될 전망

닭·오리도 정부에서 도축검사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해오던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포유류(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하였다.

세계적으로 도축검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공공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닭·오리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가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정부검사관을 76명으로 책정, 연차별로 충원하기로 하고 우선 하루에 10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나 돼지처럼 가금류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삼계탕 등 가공육과 가공품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종가축에 관한 법안 마련돼...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

토종닭, 세계 닭고기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될 것

올해부터 앞으로 우리 토종닭이 세계 닭고기시장으로 뻗어 나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 2월 22일 일부 개정된 축산법 내 토종가축에 대한 정의(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에 관한 법안(제1장 총칙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축산법에서는 '토종가축이란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된 품종의 가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이 '토종가축 보존·육성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사)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한봉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등

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가축 법안 마련에 따른 발전방안' 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양계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닭'과 같은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토종닭 종자를 통해 세계 닭고기 시장으로 뻗어 나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 O T  
ISSUE  
0 0 3

# 농식품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지정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입가능성 높아

### 가금 농가의 자율적 방역활동의 중요성 강조...농가방역수칙 철저 준수

최근 인도네시아(2012년 12월 29일), 호주(2012년 11월 9일), 대만(2012년 11월 17일), 베트남(2012년 9월 17일) 등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양계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3~4월경에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야생철새가 유입될 것이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에 AI 바이러스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

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 결과, 저병원성 AI는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하고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2011년 5월 이후 AI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2012.10~2013.5) 동안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축사 간 이동 시 신발 갈아신기,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가금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 통제

등 농가방역수를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기를 당부하였다 (1588-4060).

## 농경연, 2013년 농업전망 내놔 올해 육계 사육두수 전년 대비 6.1% 증가한 8,740만 마리 전망

20년간, 소비자가격 상승 반면,  
산지가격 하락...  
양계농가 가격부담 떠안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 이하 농경연)은 지난 1월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13' 대회를 개최하며 올해 농축산업에 대한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3년 농업생산액은 채소류와 낙농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생산액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2% 증가한 43조 4,230억 원으로 전망되며, 축산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4.5% 증가한 16조 3,250억 원으

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육계 사육두수는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8,740만 마리로 전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였다.

닭고기 공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올해 육계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3.4% 상승한 kg당 1,754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0년 간 축산물 유통단계별 실질 가격 변화율을 살펴보면,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반면 산지가

격과 도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여 축산물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6%씩 상승한 반면 산지가격은 0.5%씩 하락한 것으로 밝혀져, 이는 장기불황으로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양계농가가 모든 가격 부담을 떠안아 어려움만 가중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육계의 경우 이미 90% 이상이 계열화되어 있다. 하지만 10% 미만의 물량이 거래되는 산지시장의 생닭가격이 닭고기 시장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어, 도계육 중심의 계열화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Lively Gangwon 강원도, 다양한 양계농가 지원책 펼칠 예정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양계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 및  
위생적 양계산물 생산 기대

강원도는 2013년 양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계 명품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양계농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강원도 관계자는 "양계 명품브랜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수입개방 및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경

영비를 절감하고, 양계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청정 사육환경을 조성하며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분조절재, 계란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사 깔짚용 수분조절재는 지원단가가 왕겨 kg 당 150원이며, 사육수수, 출하회수, 분뇨처리방법 등에

따라 농가별로 차등 지원한다. 단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지원단가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계란 생산일자 자동표시기의 지원한도는 개소 당 1천만 원이며, 이송벨트와 생산일자 자동표시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는 1만 수 이상의 양계농가이며, 축산농가 평가사업의 평가표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양계농가들이 여름 폭서기 또는 겨울철 축사 내 온도조절을 통해 양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자는 3만 수 이상 양계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내 농정국 주요시책 '2013년 축산분야 사업추진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ichicken.or.kr

# 설날 맞이 푸짐한 닭고기 선물세트 선보여!!!

# 福

우리나라의 설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와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에서 매년 설날 아침 신라의 왕이 연희를 베풀고 여러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왕과 백성, 이웃과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과 정을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닭고기제조사들은 설날을 맞아 가족과 친지간에 정(情)을 나누는 푸짐한 닭고기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 (주)하림 대표 이문용

(주)하림은 친환경 닭고기 자연실록 슬림세트와 포장율 줄인 똑똑한세트(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담은 슬림닭가슴살, 뼈없는 양념달걀, 토종닭훈제세트, 반마리삼계탕세트, 전복삼계탕세트 등을 선보여 가족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http://www.harim.com)



## 농협목우촌 대표 성병덕

농협목우촌에서는 설날을 맞이해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닭고기 세트를 선보였다. 특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안심옷닭 3세트와 안심삼계탕 3세트를 선보여 어르신이나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적합한 제품들이다. (http://www.moguchon.co.kr)



## (주)체리부로 회장 김인식

(주)체리부로에서는 설날선물세트로 전통삼계탕과 치킨떡갈비, 후라이드 치킨, 델리왕 등 3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제품구성을 내놓았다. (http://www.cherrybro.com)



## (주)마니커 대표 지원철

(주)마니커는 '마니커 설날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훈제치킨 2마리와 훈제오리 2마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특히 훈제치킨은 닭고기를 통으로 포장한 후, 고급 부직포가방에 아이스팩과 함께 담아 상하지 않도록 했다. (http://www.maniker.net)



## (주)사조인티그레이션 대표 이창주

(주)사조인티그레이션에서는 정이 넘치는 설날에도 고마운 이들에게 정성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설마중'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사조로하이 선물세트'는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육을 이용한 선물세트로 훈제 닭가슴살, 훈제 토종닭 등을 담았다. (http://brand.sajo.co.kr)



시외심축 신고전화(1588-4060)

###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 AI 차단방역 철저

시외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시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 보고받자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제1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재)는 1월 31일(목) 오후 3시 제1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내용은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변경(안)이며 기타 논의사항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도 제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모습

#### 닭고기자조금 거출실적

##### 제주도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닭고기자조금 납입현황(육계)

2012년 12월

이름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박우희	은혜양계장	84,837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이승훈	봉성양계장	39,189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고주현	금능농장	20,109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오명봉	월계수농장	14,646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문도관	세화농장	65,307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강경호	우성농장	81,17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이영숙	신창농장	25,410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고지정	고려농장	90,966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행순	대선농장	8,727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고평	명월농장	72,831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양재열	베델농장	80,229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김춘애	해표농장	80,658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부남완	세일농장	84,32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오삼용	의귀농장	20,295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고치옥	고려동물	66,11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강태은	온평농장	44,847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제주도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닭고기자조금 납입현황(삼계)

2012년 12월

이름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박우희	은혜양계장	1,508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오인관	봉소농장	1,508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이승훈	봉성양계장	3,758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김성홍	화성농장	3,465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강경호	우성농장	1,958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고지정	고려농장	2,723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행순	대선농장	3,150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양재열	베델농장	3,015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김춘애	해표농장	2,250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부남완	세일농장	3,758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고치옥	고려동물	3,015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강태은	온평농장	1,800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농협목우촌 닭고기자조금 납입현황

2012년 11월

이름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김영철	김영철	16,179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김영철	김영철	56,403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김은성	김은성	123,285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배동호	배동호	82,524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성운동	성운동	38,298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윤성일	윤성일	76,800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윤성일	윤성일	49,224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최병용	최병용	196,212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임병동	임병동	104,856	경북 안동시 북후면 대현리
권오군	권오군	70,818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이병규	괴산축협	113,973	충북 괴산군 증평읍 덕상리
안병진	평택축협	44,607	경기 평택 고동면 궁리
신효정	부산축협	15,414	경남 밀양 하나읍 남전리
오세원	부산축협	64,092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황봉서	연기축협	22,425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오해진	청주축협	13,668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학리
이창열	양평축협	86,043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리
유용식	서산축협	26,880	충남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정정보도** | 본 소식지 지난 37호 3면 '2012년 11월 닭고기자조금 집행내역' 제하의 '보은대추축제(2012년 10월 19~28일, 충북 보은군 백들공원)' 행사는 시행되지 않은 바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사)대한양계협회

#### 육계분과위원회, 무허가 축사 대책마련에 지속적인 관심 당부

(사)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흥재)는 지난 1월 16일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안건이 주로 논의되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축산분뇨법 개정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현장 적용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현지실태 조사가 필요함이 인식되었다. 조사 결과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효과를 받는 축종의 적법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신·개축 절차과정에서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고 건폐율 초과로 인한 무허가 축사가 많아 건폐율의 상향조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마련 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조례마다 편차가 커 지역적으로 축사시설환경에 대한 규제가 틀리게 적용되고 있어 일관적인 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농식품부에서는 농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설명회 참석을 통한 농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농식품부에서 종축시설 및 신청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등 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가 아니더라도 겨울철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기간인 만큼 방역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대한양계협회, 농가의 장화갈아신기 적극 참여를 위한 장화 농가보급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에서는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장화를 보급한다.(사)대한양계협회는 고병원성 AI 집중방역기간에 들어서면서 무엇보다 농가 자체적인 농장방역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장 기본적인 방역 방법인 농장 내 장화갈아신기 운동의 일환으로 방역용 장화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종계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실용계 농장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따르면 야생철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AI 항원·항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저병원성 AI 검출건수가 전년대비 3.9배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서식하던 야생철새가 오는 3~4월께 우리나라로 날아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호주는 1997년 이후 15년만인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 (사)한국계육협회

**공중파 방송 통해  
겨울철 보양에 좋은 닭고기 효능 알려**

**SBS 잘먹고 잘사는법,  
겨울철 보양식 닭 칼국수 소개해**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겨울철 건강에 좋은 닭고기의 효능을 알리고, 수입산보다 뛰어난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송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토)에는 SBS의 대표적인 웰빙먹거리 소개 프로그램인 '잘먹고 잘사는법'을 통해 겨울철에 보양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닭 칼국수를 소개하고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의 장점을 알렸다.

방송에서는 여름철 삼복더위를 잊게 하는 보양식이 많지만, 겨울철에도 따스함을 만끽하며 먹을 수 있는 겨울철 건강식 닭고기 칼국수를 소개했다.

방송을 통해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서양에서는 닭을 스프로 만들어 감기를 이겨냈을 정도라며 닭고기 스프는 겨울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매끄럽고 탄력있는 피부도 만들 수 있어 피부미용에 신경을 쓰는 여성들에게도 좋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닭고기는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면서 미네랄이 풍부해 쉽게 소화가 잘되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단백질 보충용으로 좋다"고 했다.

오 교수는 "닭날개 먹으면 바람난다는 말은 틀어진다"는 것이라며, "닭날개에 포함된 뮤신 성분은 상어지느러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끄럽고 탄력있는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고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의 가슴살은 단백질이 23% 포함되어 있어 두뇌성장과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날개와 다리, 목살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

여 시력에 도움이 되고 소고기의 10배 이상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강근호 박사는 "국내산 닭고기는 냉장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산 닭고기는 냉동유통되어, 국내산 닭고기가 더욱 신선하며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말했다.

**SBS 모닝와이드, 신선하고 영양가  
풍부한 국내산 닭고기 고르는 법 소개**

구분	지방	칼로리	필수아미노산
닭고기	3.2	101.8	68.4
돼지고기	28.5	310.1	57.3
소고기	16.9	224.5	59.2

1월 22일(화)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태백산행을 마치고 원기보충을 위해 즐겨먹는 닭고기 요리 맛집과 냉동유통방식의 수입산과 비교했을 때 냉장유통으로 신선하고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 닭고기를 고를 수 있는 법을 소개했다.

방송에서는 겨울이면 평균 3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몰리는 태백산 줄기에 있는 물닭갈비 전문 음식점을 소개했다. 물닭갈비는 예로부터 태백의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일을 마친 후 원기회복을 위해 즐겨 먹던 닭갈비에 양을 늘리기 위해 물과 채소를 넣어 먹던 것이 시초라고 전하며, 닭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무기질, 불포화지방산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영양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시키지 않은 신선한 닭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즐겨보는 다양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 건강에 좋은 국내산 닭고기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계속되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계육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신년 임원진 신년회 개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 이하 협회)는 지난 1월 16일 대전 유성 소재 숯골냉면에서 임원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김연수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 지회장 등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협회는 '13년 중점 추진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기관에 대한 준비와 자조금, 교육, 한담 인증제 활성화, 수출 사업 등을 중점으로 토종닭 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임원진들은 작년 한 해 토종닭 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올해에는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서 함께 토종닭 산업을 지켜나가자고 결의했다.

김연수 회장은 "올해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과 회원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산업발전에 함께 해 주기를 당부했다.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정학동 부회장 연임**

(사)한국토종닭협회 중계부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대전 유성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도 축산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 돼지, 육계, 오리 등 기타 육류의 과잉공급과 수입 닭고기 급증, 장기간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우리 산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학동 부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정되면서 향후 2년간 중계·부화분과위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농림축산부 개칭에 대한 성명서 발표**

지난 1월 23일 (사)한국토종닭협회(이하 협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인수위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개칭하는 것을 두고 농·식품 산업이 20년 후퇴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농·축산물(천연물)을 이용해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겠다는 농식품부의 정책은 공중분해되었으며, 그동안 1차 산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 개발과 투자를 위해 노력해 온 농축산인과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식품업무가 농식품부가 아닌 부처로 이관되면 농업과 식품의 연계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키면서 식품안전과 식품진흥 등의 전 분야를 이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우려감도 드러났다.

한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 다른 OECD 국가들은 앞다투어 농림부를 '식품 및 농림부'로 개칭하고 안전관리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최근 식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농무부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1월 16일 신입사원 정윤석(鄭倫碩, 28세)을 채용했다.

정윤석 직원은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을 전공하고 한국마사회 인턴을 거쳐 본 협회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 닭산적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식욕을 돋게 한다. 통으로 준비한 닭 배 쪽에 길이로 칼을 넣어 넓게 편 후 방망이로 두들겨 넓적하게 편 상태에서 조리하여 차례상에 올려도 된다.

## Today's 계림 열전

**재 료** 닭다리 10개, 대파 1/2대,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생강채 5g, 식용유  
**양념장** 간장 4큰술, 다진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물엿 3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청양고춧가루 1작은술, 청주 1큰술, 참기름 2작은술, 생강즙 1큰술

### Cooking

1. 닭다리는 한쪽에 뼈를 그대로 두고 살을 펴서 칼등으로 두들겨 두께가 일정하게 만들고 칼끝으로 껍질 쪽을 짚어 오그라들지 않게 한다.
2. 양념장 재료는 재료를 잘 섞어 만든다.
3. 대파는 3cm길이로 채 썰고, 홍·청고추는 길이로 반을 갈라 씨를 털고 가로로 채를 썬다.
4. 기름 두른 팬에 생강채를 넣고 향이 나면 1의 닭고기를 놓아 앞뒤로 익혀 꺼내어 2의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 재운다.
5. 팬에 4의 닭을 놓아 익히면서 파채, 홍·청고추채를 곱명으로 얹어 익힌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안승춘 회장

## 中 명나라에 알려졌던 긴꼬리닭 FAO에 등재돼

국내 장미계는 명나라 이시진이 저술한 의서 '본초강목'에 "朝鮮 一種長尾鷄 尾長三四尺 遼陽 一種食鷄 味俱肥美 大勝諸鷄(조선에는 꼬리가 3~4척에 이르는 긴꼬리닭이 있으며 맛이 살지고 좋아 다른 닭보다 훨씬 좋다)"는 내용이 실려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서로가 먼저 백제의 장미계를 구입하려고 경쟁을 했을 정도라고 한다. 조선 중종 때는 명나라 사신이 오면 정력에 좋다는 '계관육(鷄冠肉)'을 대접했으며 이것을 대접받은 사신들은 외교상 안 좋은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의서 '초본류(草本類)'에서는 우리나라 닭이 약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기재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뿐 아니라 고대 중국인에게까지 사랑받았던 국내 긴꼬리닭이 지난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다양성 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었다. FAO는 1945년 발족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식료품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및 품종 개량기술을 지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4개국이나 지역에서 보유 중인 가축유전자원 1만 4천여 품종이 등재돼 있는 유엔의 전문기구이다.

이번에 등재된 긴꼬리닭은 (주)현축 이희훈 대표가 30여 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복원한 품종이다. 꼬리길이는 2년생 이후 1m에 이르며, 적갈색계와 황갈색계 2품종이다.

이희훈 대표의 긴꼬리닭이 FAO에 등재됨에 따라 국익을 확보하고 후대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놀자 낱말맞추기

1		2		11	12
	3			10	
4				9	8
5	6				
				7	

### ◇ 가로풀이

- ① 어린 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 찹쌀, 대추, 밤 등을 넣어서 곤 보양음식
- ③ 중요한 책임
- ⑤ 전통적 인습을 깨뜨리고 자율적인 견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려는 운동
- ⑦ 깨끗하게 씻음
- ⑨ 임금의 아들
- ⑪ 갈보아 욱되게 함

### ◇ 세로풀이

- ② 조선조 영조가 당쟁의 뿌리를 뽑아 왕권의 신장과 탕탕 평평을 꾀한 정책
- ④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
- ⑥ 꿈속에 해매. 꿈같은 기분으로 유람함
- ⑧ 자줏빛이 나는 수정
- ⑩ 여자임금
- ⑫ 부족을 느끼어 이를 채우려고 바라는 마음



... 정답은 41호에 게재합니다

## 건강하자

### 동의보감에서 밝히는 '검은 수탉'의 효능

#### ❖ 오웅계육 (烏雄鷄肉, 검은 수탉의 고기)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독이 없다. 가슴앓이, 배앓이와 명치 아래에 악기(心腹惡氣)가 있는 것과 풍습으로 저리고 아픈 것을 낫게 한다. 허약하고 여윈 것을 보(補)하며 안태(安胎)시킨다. 다쳐서 골절된 것과 웅저를 낫게 한다. 또한 나무나 참대의 가시가 박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생것을 붙인다[본초].

#### ❖ 검은수탉의 멀더구니 속껍질

(모래주머니 속에 있는 누런 껍질)

성질이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유평, 몽설, 유뇨,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붕루, 대하, 장풍(腸風), 설사와 이질을 치료한다[본초].

#### ❖ 오웅계담 (烏雄鷄膽, 검은 수탉의 쓸개)

성질이 약간 차다. 주로 눈을 밝히지게 하고 현대를 낫게 한다[본초].

#### ❖ 오웅계혈 (烏雄鷄血, 검은 수탉의 피)

성질이 평하다. 악기(中惡)에 상

한 것과 접질려서 뼈가 부러져 아픈 것을 치료한다[본초].

#### ❖ 오웅계방 (烏雄鷄肪, 검은 수탉의 기름)

성질이 찬데 귀머거리를 치료한다[본초]. 두터운 기름갓을 쓴대[입문].

#### ❖ 오웅계장 (烏雄鷄腸, 검은 수탉의 창자)

유뇨(遺尿)와 오줌이 참을 수 없이 자주 나가는 것을 치료한다[본초].

#### ❖ 오웅계시백 (烏雄鷄屎白, 흰똥)

성질이 약간 차므로 소갈증을 치료하고 석림(石淋)을 해친다.